

주요용어 : 여성, 흡연, 불안, 우울, 니코틴

# 미혼 흡연여성들의 불안, 우울 및 자아존중감이 흡연양 및 니코틴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

김옥수\* · 김애정\*\* · 김선화\*\*\* · 백성희\*\*\*\*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한국금연운동협의회의 보고에 의하면, 2001년도 여성 흡연자의 비율은 3.4%로, 전년도에 비해 0.3% 상승하였으며, 흡연 경험이 있는 여성의 70%가 10년 전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어 최근 10년 이내에 흡연을 시작한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KASH, 2001). 또한 우리나라 20대 여성의 흡연율은 1990년에서 2001년까지 1.5%에서 5.7%로 크게 증가하였고, 18~19세 연령층의 여성흡연자는 1990년 1.0%에서 2001년 9.5%로 10년 동안 10배 가까이 상승하였다(www.donga.com, 2001). 더욱이 젊은 여성들은 흡연을 마치 여성해방 의식의 표현이거나 사회적 지위 향상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여성 흡연자의 수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여겨진다. 여성의 흡연은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가임기 미혼 여성의 흡연은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건강문제이다.

대부분의 흡연경험이 있는 여대생들은 호기심과 친구를 사귀기 위해 흡연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Kwak, 1995), 이들이 니코틴에 의해 의존적이 되기 전에 금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시급하다. 여성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흡연자에 대한 금연교육도 중요하지만 흡연을 시작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이미 흡연을 시작한 흡연자에게는 흡연 행위와 관련된 요인을 발견하여 이에 대처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흡연과 관련이 있는 사회 심리적 변수로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이 있다. Patton, Hibbert, Rosier와 Carlin(1996)은 우울과 불안 증상이 10대의 흡연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며, Patton 등(1998)은 우울과 불안이 흡연을 시작하게 하는 강한 예측인자라고 하였다. 반면 Williams와 Adams-Campbell(2000)은 흡연이 우울 증상의 심각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Takemura, Akanuma, Kikuchi와 Inaba(1999)는 높은 기질 불안이 흡연 습관을 갖게 하는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으며, 금연의 성공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하고 있어, 우울과 불안의 흡연과의 관계에 관한 반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Oh, Kim과 Youn(1993)은 니코틴 의존도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 우울 성향을 보고하고 있으나, Breslau와 Johnson(2000)은 20~30대를 대상으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대학 부교수

\*\* 여주대학 조교수

\*\*\* 경동경보대학 전임강사

\*\*\*\* 서울여자대학교 외래교수

로 한 연구에서 니코틴 의존도는 매일 흡연하는 사람들의 우울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도 흡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Kendler 등(1999)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여성들이 니코틴 의존도가 높다고 보고하여, 여성의 흡연과 니코틴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임기에 있는 20~30대 젊은 여성의 흡연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며, 흡연과 니코틴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성의 사회 심리적 요인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의 흡연과 니코틴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한다면, 여성의 흡연을 감소와 성공적인 금연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가임기에 있는 젊은 여성들의 흡연행위는 대상자 자신의 건강상태 뿐 아니라 미래 태어날 자녀들을 포함한 가족의 건강과 건강관련행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젊은 여성들의 흡연 행위와 금연을 위한 대책은 차세대의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흡연 여성들의 불안, 우울, 자아존중감이 흡연양 및 니코틴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흡연여성의 불안, 우울, 자아존중감, 친구와 가족의 흡연 여부, 흡연양, 니코틴 의존도를 파악한다.
- 2) 흡연여성의 불안, 우울, 자아존중감이 흡연양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 3) 흡연여성의 불안, 우울, 자아존중감이 니코틴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 2. 용어정의

1) 불안 : 불안이란 스트레스나 위협적인 상황으로부터 초래되는 부정적인 정서반응으로 상태불안과 기질불안으로 구분된다(Spielberg, 1975). 상태불안은 자극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 일어나는 유기체의 변화하는 상태이고 매 순간 상황에 따라 다르며, 기질불안은 비교적 변하지 않는 개인의 상태이고 긴장 하에서 상태불안으로 반응하는 잠재적 상태로(Spielberg, 1975), 본 연구에서는 Spielberg(1975)가 개발하고 Kim과 Shin(1978)이 변안한 자가보고형의 불안 측정도구 STAI(State Trait Anxiety Inventory)를 사용하여 측정된 기질불안 값을 의미한다.

2) 우울 : 우울이란 정상적인 기분 변화에서 병적인 상태에 이르는 근심, 침울감, 무기력감 및 무가치감을 나타내는 상태(Battle, 1978)로, 본 연구에서는 Radloff (1977)가 개발하고 Chon과 Rhee(1992)가 변안한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로 측정된 값을 말한다.

3) 자아존중감 :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성공적이고 가치가 있다고 믿는 정도(Coopersmith, 1967)로 Jon(1974)이 번역한 Rosenberg Self-Esteem Scale(Rosenberg, 1965)을 사용하여 측정된 값을 의미한다.

4) 흡연양 : 흡연양은 지난 한 달간 담배를 하루 평균 몇 개비를 피웠는지를 의미한다.

5) 니코틴의존도 : 니코틴에 정신적, 신체적으로 지나치게 기대는 경향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Fagerstrom과 Schneider(1989)가 개발한 Fagerstrom Tolerance Questionnaire를 주 연구자가 번역, 역번역하여 변안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된 값을 의미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흡연 여성의 불안, 우울, 자아존중감이 흡연양과 니코틴 의존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의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20~30대의 미혼 흡연 여성들로 4개의 대학교에 재학중인 여대생 56명과 4개의 사무직에 근무하는 65명의 직장 여성 총 121명을 편의 추출하였다.

### 3. 연구 도구

1) 불안 : Spielberg(1975)가 개발한 자가보고형의 불안 측정도구 STAI(State Trait Anxiety Inventory)를 Kim과 Shin(1978)이 한국어로 변안한 도구 중 4점 척

도의 20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기질불안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보편적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느끼는지의 질문에 대해 대상자들이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가끔 그렇다'(2점), '자주 그렇다'(3점), '항상 그런 편이다'(4점)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긍정형의 문항은 역으로 점수를 환산하였으며, 가능한 총 점수는 20~80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수술을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Lee와 Choi(1999)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를 .70으로 보고하였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87이었다.

2) 우울 : 대상자의 우울의 정도를 측정하고 우울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Radloff(1977)가 개발하고 Chon과 Rhee(1992)가 번역한 20개 문항의 한국판 CES-D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우울한 감정(7문항), 긍정적 감정(4문항), 신체화 증상(7문항), 대인 관계(2문항) 등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상자들은 20개 항목의 질문에 대해 지난 한달 동안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해 '거의 드물게'(0점), '때로'(1점), '상당히'(2점), '대부분'(3점)으로 응답을 하게 되어 있으며 가능한 총점은 0~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16점 이상을 받은 대상자들은 우울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구분된다(Craig & Van Natta, 1978).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16점 미만은 정상군, 16점 이상은 우울군으로 구분하였다. 긍정적인 감정을 측정하는 문항은 역으로 점수화하였다. Chon과 Rhee(1992)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를 .89로 보고하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7이었다.

3) 자아존중감 :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Jon(1974)이 번역한 Self-Esteem Scale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아에 대한 대상자들의 태도를 측정하는 5단계 평정의 총 10개 문항 질문지로 긍정형, 부정형 문항이 각 5개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형 문항은 역으로 점수를 환산하였으며, 가능한 총 점수는 10~5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Shin과 Kim(1998)은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를 .81로 보고하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70이었다.

4) 흡연양 : 흡연양을 측정하기 위해 지난 한 달간

하루 평균 몇 개비의 담배를 피웠는지를 조사하였다.

5) 니코틴의존도 : 니코틴 의존도는 Fagerstrom과 Schneider(1989)가 개발한 Fagerstrom Tolerance Questionnaire(FTQ)를 주 연구자가 번역, 역번역 과정(Chapman & Carter, 1979)을 사용하여 만든 도구를 사용하였다. FTQ는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능한 총 점수는 0~11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니코틴 의존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7점 이상이면 니코틴의 의존도가 높아 금연시에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정한다. Jeong, Pi, Kang, Lee와 Youn(1996)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를 .60(남학생 0.55, 여학생 0.76)으로 보고하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62이었다.

#### 4)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00년 1월에서 5월까지 실시되었다. 연구목적과 연구 동의서가 포함된 질문지를 배부한 후 대상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응답에 원치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회수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었으며 질문지 회수율은 85%였다.

#### 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도구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coefficients를 구하였다.

- ①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불안, 우울 및 자아존중감의 정도, 흡연양, 니코틴 의존도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② 대상자의 우울, 불안, 자아존중감의 정도가 흡연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 ③ 대상자의 우울, 불안, 자아존중감의 정도가 니코틴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 직업, 종교, 교육,

주거형태, 친구 및 가족의 흡연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대상자 121명의 연령 범위는 20~39세였으며, 이 중 20대가 90.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30대는 9.1%이었다.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49.6%이었으며, 종교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는 53.7%이었는데, 이 중 기독교가 33.9%로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은 대학 재학이 46.3%로 가장 많았고, 대졸은 38.0%를 차지하였다. 주거형태로는 부모와 함께 사는 대상자가 60.4%로 가장 많았고, 17.4%가 혼자 산다고 하였으며, 형제와 친구와 함께 사는 경우가 각각 8.3%이었다. 대상자 중 친구가 흡연을 하는 경우가 93.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가족 중 흡연자가 있는 경우는 74.4%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Background variables (N=121)

	M±SD	n	%
Age	24.17±3.64		
20-29		110	90.9
30-39		11	9.1
Employment Status			
Currently employed		60	49.6
Unemployed		61	50.4
Religion			
Protestant		41	33.9
Catholic		15	12.4
Buddhism		9	7.4
Other		56	46.3
Education			
Middle/high school graduate		19	15.7
College student		56	46.3
College graduate		46	38.0
Living Arrangement			
Alone		21	17.4
With parents		73	60.4
With siblings		10	8.3
With friends		10	8.3
Other		7	5.8
Having Friend Smoker			
Yes		113	93.4
No		8	6.6
Having Family Smoker			
Yes		90	74.4
No		31	25.6

<Table 2> Anxiety, depression, self-esteem, and nicotine dependency

(N=121)

	M±SD	Possible Range	Obtained Range
Anxiety	46.46±8.90	20-80	26-69
Depression	21.93±8.91	0-60	6-44
Self-Esteem	34.53±5.66	10-50	21-48
Nicotine Dependency	2.77±1.86	0-11	0-8
Smoking	9.58±7.58		1-50

## 2. 불안, 우울, 자아존중감, 흡연양과 니코틴 의존도

본 연구에서 STAI로 측정된 대상자의 불안의 점수 범위는 26~69였으며, 평균점수는 46.46이었다. 우울의 평균 점수는 21.93이었고, 자아존중감의 평균 점수는 34.53이었다.

대상자는 하루 평균 9.58개비의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측정범위는 1-50개비로써 하루 2갑 이상의 담배를 피우는 대상자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니코틴 의존도의 측정 가능한 점수는 0~11이었는데, 평균 점수는 2.77로 나타났다<Table 2>.

## 3. 불안, 우울, 자아존중감이 흡연양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우울( $\beta=.379$ ,  $p=.001$ )과 자아존중감( $\beta=.245$ ,  $p=.027$ )은 흡연양에 영향을 미쳤으나, 불안은 흡연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의 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흡연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흡연양에 대한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설명력은 9.3%였다<Table 3>.

<Table 3> Effects of anxiety, depression, and self-esteem on smoking (N=121)

	Smoking			
	$\beta$	R <sup>2</sup>	F	p
Depression	.379	.054	6.817	.010*
Self-Esteem	.245	.093	6.038	.003**
Anxiety				.468

\* $p < .05$ , \*\* $p < .01$

## 4. 불안, 우울, 자아존중감이 니코틴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우울( $\beta=.435$ ,  $p=.001$ )과 불안( $\beta=-.270$ ,  $p=.031$ )은 니코틴 의존도에 영향을 미쳤으나, 자아존중감은 니코틴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울의 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불

안의 정도가 낮을수록 니코틴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 니코틴 의존도에 대한 우울과 불안의 설명력은 9.6%였다<Table 4>.

<Table 4> Effects of anxiety, depression, and self-esteem on nicotine dependency (N=121)

	Nicotine Dependency			
	$\beta$	R <sup>2</sup>	F	p
Depression	.435	.059	7.516	.007**
Anxiety	-.270	.096	6.253	.003**
Self-Esteem				.488

\*\*p< .01

#### IV. 논 의

본 연구는 20~30대의 미혼 흡연 여성들의 불안, 우울 및 자아존중감의 정도가 흡연양과 니코틴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대부분의 대상자들(93.4%)이 흡연하는 친구가 있었으며 가족 중 흡연자가 있는 대상자도 74.4%를 차지하였다. STAI로 측정된 기질 불안의 평균 점수는 46.46으로 나타났다. CES-D를 사용하여 측정된 대상자의 우울의 평균 점수는 21.93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울의 가능성의 기준이 되는 16점(Radloff, 1977)보다 훨씬 높은 점수였으며, Kim과 Kim(2000)이 보고한 여대생의 우울 평균 점수 21.69와는 비슷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젊은 여성들의 우울의 정도가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할 건강문제임을 나타내는데, 이에 대한 국내 연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우울의 정도를 감소시켜주기 위한 접근 방법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미혼 흡연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의 평균 점수는 34.53으로 나타나, 일반 여고생과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Kim과 Kim(2000)의 연구에서 보고된 자아존중감 35.21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대상자의 흡연양은 하루 평균 9.58개비였는데, 이는 한국금연협의회(KASH, 2001)가 조사한 여성 흡연자의 평균 1일 흡연양인 7.3개비보다 높게 나타나, 전체 여성 중에서도 특히 20, 30대 가임기 미혼 여성의 흡연양이 더 높을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또한 2001년 세계보건기구(WHO)의 15세 이상 흡연자의 흡연양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25개 조사 대상국 중에서 한국 여성의 1일 흡연양은 20개비 이상으로 세계 1

위로(Hankoolilbo, 2001)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여성의 전반적인 흡연양이 심각하게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여성 금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2001년도 미국보건총감보고서(National Center for Chronic Disease Prevention and Health Promotion, 2001)에 따르면, 1990년대에는 매년 미국 여성들이 흡연 관련 조기 사망으로 2백 10만명이 목숨을 잃는 것으로 추산되었으며, 2000년대에는 유방암보다는 폐암으로 사망하는 여성이 훨씬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여성의 흡연은 구강인두암, 방광암, 관상동맥심장질환, 만성폐색성폐질환 등의 주요 요인이 되며, 흡연 여성은 임신 지연의 위험성이나 직접·간접적 불임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자궁의 임신과 자연유산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어(National Center for Chronic Disease Prevention and Health Promotion, 2001),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자녀의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임기의 흡연 여성에 대한 금연 대책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대상자의 니코틴 의존도의 평균 점수는 2.77점으로, 니코틴 의존에 따른 금단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7점보다 낮았으며, Kim, Nam, Oh와 Yoo(1997)가 중·고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흡연군의 니코틴 의존 점수 3.16보다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자의 93.4%가 친구 중 흡연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국보건총감보고서(National Center for Chronic Disease Prevention and Health Promotion, 2001)에 따르면, 흡연을 시작하는 소녀들은 흡연을 하지 않는 소녀보다 흡연자 친구나 흡연자 부모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으며, 부모나 가족과의 접촉이 적은 반면 또래나 친구들과의 접촉이 더 많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여성에서의 흡연의 동기나 지속여부가 친구의 흡연과 관련이 있는지 더 조사해 볼 필요가 있으며, 흡연 여성의 금연을 위한 간호중재를 개발함에 있어 가족의 흡연 여부 보다 친구의 흡연 여부를 더 많이 고려해야 하고, 금연 중재시 흡연하는 친구를 함께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우울의 정도가 높을수록 흡연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Escobedo, Kirch와 Anda(1996)가 라틴계 민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우울의 정도가 높으면 흡연도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한 것과 일치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어 여성의 흡연양에 우울의 정도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흡연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Kawabata, Cross, Nishioka와 Shimai (1999)의 연구에서는 여중고생들의 경우 비흡연자가 흡연자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흡연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흡연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흡연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직접 비교하여 일관성있게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20~30대 미혼 여성들은 흡연이 여성해방의 표현이나 사회적인 지위 향상으로 생각하여 높은 자아존중감이 흡연양에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되지만, 본 연구에서 나타난 흡연양에 대한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설명력은 9.3%이므로, 여성의 흡연양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대상자의 우울의 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불안의 정도가 낮을수록 니코틴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울성향이 있는 흡연자들이 우울성향이 없는 흡연자들 보다 니코틴 의존도가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난 Lerman 등(1996)의 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니코틴 의존도를 사정하기 위한 도구인 FTQ의 신뢰도는 비교적 낮으므로 결과 해석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우울한 여성은 흡연양도 많고 니코틴 의존도도 높으므로 미혼 여성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위한 간호중재를 위해 우울의 정도를 사정하고 우울의 정도를 감소시켜주는 중재 방법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불안도가 낮을수록 니코틴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행 연구에서 불안과 니코틴 의존도를 밝힌 논문은 거의 없어 불안과 니코틴 의존도의 관계에 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우울과 불안의 정도가 니코틴 의존도를 9.6%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니코틴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미혼 흡연 여성들의 불안, 우울, 자아존중감이 흡연양과 니코틴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20~30대 미혼 흡연 여성 1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상자 중 친구가 흡연을 하는 경우가 93.4%, 가족이 흡연을 하는 경우가 74.4%로 대부분의 경우 가까운

주위에 흡연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불안의 평균점수는 46.46이었으며, 우울의 평균 점수는 21.93으로 우울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혼 흡연 여성들의 우울의 정도를 감소시켜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우울의 정도가 높을수록 흡연양이 많고 니코틴 의존도가 높았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흡연양이 많았고 또한 불안의 정도가 낮을수록 니코틴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 결과 20, 30대 흡연 미혼 여성의 흡연양은 하루 평균 9.58개비로 한국금연협회연구결과보다 많음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비해 니코틴 의존도는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이를 기초로 차세대의 건강을 책임질 가임기 여성들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하여 여성의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 여성들이 효과적으로 금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홍보 방법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며, 특히 우울 예방과 연계된 금연 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흡연양과 니코틴 의존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다른 가능한 요소들에 대한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일부 대학과 사무직에 종사하는 흡연 여성 235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므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References

- Battle, J. (1978).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depression. *Psychological Reports*, 42(3pt 1), 745-746.
- Breslau N., & Johnson E. O. (2000). Predicting smoking cessation and major depression in nicotine-dependent smokers. *Am J Public Health*, 90(7), 1122-1127.
- Chapman, D. W., & Carter, J. F. (1979). Translation procedure for the cross-cultural use of measurement instruments. *Edu Eval & Policy Anal*, 1(3), 71-76.
- Chon, K. K., & Rhee, M. K. (1992). Preliminary Development of Korean Version of CES-D. *Korean J Clinical Psychol*, 11(1), 65-76.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Co. 19-44.
- Craig, T., & Van Natta, P. C. (1978). Current medication use and symptoms of depression in a general population. *Am J of Psychiatry*, 135, 1036-1039.
- Escobedo, L. G., Kirch, D. G., & Anda, R. F. (1996). Depression and smoking initiation among US Latinos. *Addiction*, 91(1), 113-119.
- Fagerstrom, K. O., & Schneider, N. G. (1989). Measuring nicotine dependence: A review of the Fagerstrom Tolerance Questionnaire. *J of Behav Med*, 12(2), 159-182.
- Hankookilbo (2001, May 30). Korean smoker's daily smoking : woman is first, man is second in the world.
- Jeong, L. S., Pi, S. Y., Kang, Y. J., Lee, S. H., & Youn, B. B. (1996). Smoking status and nicotine dependency of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J Korean Acad Fam Med*, 17(6), 425-437.
- Jon, B. J.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Nonchong*, 11, 107-129.
- Kawabata, T., Cross D., Nishioka, N., & Shimai, S. (1999).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smoking behavior among Japanese early adolescents initial results from a three-year study. *J Sch Health*, 69(7), 280-284.
- Kendler, K. S., Neale, M. C., Sullivan, P., Corey, L. A., Gardner, C. O., & Prescott, C. A. (1999). A population-based twin study in women of smoking initiation and nicotine dependence. *Psychol Med*, 29(2), 299-308.
- Kim, D. H., Nam, K. K. Oh, B. H., & Yoo K. J. (1997). Effect of Community Based Adolescent drug abuse program for smoking students. *J Korean Neuropsychiat Assoc*, 36(1), 177-191.
- Kim, J. K., & Shin, D. K. (1978). A study based on the standardization of the STAI for Korea. *New Medical J*, 21(11), 69-75.
- Kim, O. S., & Kim, K. H. (2000). Weight, self-esteem and depression in high school and college females. *J of Korean Acad Adult Nurs*. 12(3), 396-406.
- Korean Association of Smoking & Health (2001). Korea smoking survey in 2001.
- Kwak, J. (1995). A study on smoking status and its related factors for female students of a women's university in Seoul. *J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 12(2), 120-137.
- Lee, P. H., & Choi, K. S. (1999). A study on the effect of supportive touch on the anxiety of the patients. *J Korean Acad Adult Nurs*, 11(3), 486-498.
- Lerman, D., Audrain, J., Orleans, T., Boyd, R., Gold, K., Main, D., & Caporaso, N. (1996). Investigation of mechanism linking depressed mood to nicotine dependence. *Addict Behav*, 21(1), 9-19.
- Ministry of Health & Welfare (1999).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 National Center for Chronic Disease Prevention and Health Promotion (2001). *A report of the Surgeon General : Women and smoking*.
- Oh, S. D., Kim, S. I., & Youn, B. B. (1993). The relationship between nicotine dependency and depression in smokers. *J Korean Acad Fam Med*, 14(2), 79-87.
- Patton, G. C., Carlin, J. B., Coffey, C., Wolfe, R., Hibbert, M., & Bowes, G. (1998). Depression, anxiety, and smoking initiation: A prospective study over 3 years. *Am J Public Health*, 88(10), 1518-1522.
- Patton, G. C., Hibbert, M., Roiser, M. J., & Carlin, J. B. (1996). Is smoking associated with depression and anxiety in teenagers ? *Am J Public Health*, 86(2), 225-230.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Shin, H. S., & Kim, Y. H. (1998). The effects of education for women's health on the performance of health promoting behavior and self esteem of college women. *J Korean Acad Nurs*, 37(4), 72-83.

Spielberg, C. D. (1975). *Anxiety : state-trait process, stress and anxiety 1*. New York. John Wiley & Sons, 115-144.

Takemura, Y., Akanuma, M., Kikuchi, S., & Inaba, Y. (1999). Cross-sectional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moking or smoking cessation and trait anxiety. *Prev Med*, 496-500.

Williams, C. D., & Adams-Campbell, L. A. (2000). Addictive behaviors and depression among African Americans residing in a public housing community. *Addict Behav*, 25(1), 45-56.

www.donga.com (2001, May 30). Female smoking rate has been increased 10 times for last 10years.

- Abstract -

## The Effects of Anxiety, Depression and Self-Esteem on Smoking and Nicotine Dependency Among Unmarried Woman Smokers

*Kim, Ok-Soo\* · Kim, Ae-Jung\*\**

*Kim, Sun-Wha\*\*\* · Baik, Sung-Hee\*\*\*\**

Purpos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nxiety, depression and self-esteem on the amount of smoking and nicotine dependency among woman smokers.

Method: The convenience sample consisted of

121 unmarried woman smokers. The STAI, the CES-D Scale, the Self-Esteem scale and the FTQ were utilized to measure the level of anxiety, depression, self-esteem, and nicotine dependency. The amount of smoking was calculated based on the number of cigarette used.

Results: Results indicated that woman smokers were depressed. Nicotine dependency was relatively low. Subjects had smoked a mean of 9.58 cigarettes per day. The level of depression influenced on smoking and nicotine dependency. Self-esteem influenced on the amount of smoking and anxiety influenced on nicotine dependency.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amount of smoking of unmarried woman smokers was very high. Both the amount of smoking and nicotine dependency were affected by levels of depression. Education programs and campaigns are needed to prevent smoking of young adult women.

Key words : Women, Smoking, Anxiety, Depression, Nicotine

---

\*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Yeoo Institute of Technology

\*\*\* Full time Lecturer, Department of Nursing, Kyungdong College of Technoinformation

\*\*\*\* Part Time Lecturer, College of Social Work, Seoul Womans University